

# 수목원에서 펼쳐진 런웨이, 대전 패션은 이제 시작

✎ 이심건 기자 | ☎ 승인 2025.09.27 | □ 17면

## 대전디자인진흥원, 2025 대전패션컬렉션 성료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대전의 가을 밤, 한밭수목원이 패션 무대로 변신해 지역 디자이너와 신진 인재들의 작품이 시민들에게 선보였다.

25일 저녁 대전 한밭수목원 원형광장에서 열린 '2025 대전패션컬렉션'이 시민과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 속에 막을 내렸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 중견 디자이너와 대학 패션학과 신진 디자이너들이 협업해 16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이며 도심 속 특별한 문화 향연을 펼쳤다.

이번 컬렉션은 대전시가 주최하고 대전디자인진흥원이 주관했으며, 한밭수목원을 배경으로 모델들의 워킹과 의상, 음악이 어우러져 가을 저녁의 색다른 무대를 연출했다. 원형 돔 무대에서 시작된 이색적인 스테이지 구성은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타 지역 관광객들도 함께해 로컬 패션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런웨이에는 대전을 대표하는 중견 디자이너 정훈종(정훈종패션스토리), 김유미(우리웃음), 김병환(중촌패션플랫폼)과 대전대·목원대·배재대·충남대·한남대 패션학과 학생 등 총 80여 명의 디자이너가 참여했다. 이들이 협업해 선보인 160여 점의 작품은 시민들에게 신선한 패션 경험을 제공했다.

대전디자인진흥원은 로컬 패션 전문 인력 발굴을 위해 참여한 신진 디자이너 중 최우수상 5팀, 우수상 5팀 등 총 10팀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이창기 대전디자인진흥원장은 “앞으로도 로컬 패션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이번 컬렉션을 통해 대전시민들이 패션의 미래를 함께 그려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행사 관련 사진은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5일 저녁 대전 한밭수목원 원형광장에서 열린 '2025 대전패션컬렉션' 행사 모습. 대전디자인진흥원 제공



25일 저녁 대전 한밭수목원 원형광장에서 열린 '2025 대전패션컬렉션' 행사 모습. 대전디자인진흥원 제공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mailto:beotkkot@cctoday.co.kr)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